

추수감사주일

오전 11:00 인도 : 한세완 목사

※표는 일어섭니다

※ 예배선언 / 인도자

※ 찬 송 / 590장

※ 교 독 문 / 59번(시 136편) - (찬송가 부록 참조)

※ 회개기도 /

※ 신앙고백 / 사도신경

찬 송 / 592장

기 도 / 윤석경 장로

성경봉독 / 골로새서 3:15-17 -배인환 집사

※ 봉 헌 / 633장 - 다같이 일어서서

- 헌금은 예배 전 입구의 헌금함에, 봉헌은 헌금위원

교회소식 /

찬 양 / - 할렐루야 찬양대

설 교 /

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

※ 찬 송 / 587장 1절(일어서서)

※ 축 도 / 인도자

오후 2:00 인도 : 한세완 목사

경배와찬양 / 소망인찬양팀

기 도 / 안문희 권사

설 교 / 로마서 8:26-30

하나님께 의존하는 삶

찬 송 / 소망인찬양집 106번(너는 시냇가에)

축 도 / 인도자

인도 : 한세완 목사

가정을 위해, 나라와 민족을 위해, 영혼구원을 위해

본문 : 전교인 묵상지 '매일성경' 본문

스펄전 목사의 묵상

“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”(히 13:5)

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샘을 여신다면 곧 모든 이들에게 주시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굶주린 한 백성을 위해 천국의 곳간 문을 여셨더라도 배고픈 성도라면 누구나 그 식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모세에게도 임했던 마찬가지입니다. 그 말씀은 언약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. 그러므로 너무 고귀해서 받을 수 없는 축복도 없고, 너무 광활해서 얻을 수 없는 공훈도 없습니다.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십시오. 이 모든 게 바로 당신 것입니다.

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? 그렇다면 그 젖과 꿀을 마시고 취하십시오. 부디 담대하십시오. 하나님은 친히 “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”고 말씀하십니다. 능력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.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공훈을 베푸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신성을 이루는 모든 속성 하나 하나가 최대한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. “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.” 이 말씀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당신이 원하는 것이든, 이 땅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, 살아 있는 것이나 죽어가는 것 중 어느 것도, 현재나 부활한 아침에 있을 것 중 그 무엇이랴도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♥



다음 주 11/22			11/29
예배위원	낮예배기도	심동석	박희철
	오후예배기도	이순옥	이지은
	성경봉독	노승석	박경열
	월 봉 사	헌금 / 송필영 안내 / 이정환 이미순	
봉사위원	식사봉사	문현주 안문희 김정엽	김혜영 강영숙 강덕자
	청소봉사	박기순 전영수 정윤란 송필영 김규태 김방식 김경희 송석건	이수지 강미정 양은경 김선자 이진아 학생부

1.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.

-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
강단 미화 : 성단부

2. 나라와 민족을 위해,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.

- 지진과 기근과 테러의 소문이 가득한 현실에
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절실한 때입니다.

3. 황하 선교사의 회복과 25일 2차 수술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1차 수술 후 몸의 불편함과 염증, 두드러기로 고생 중입니다.**4. 2016년도 봉사자 임명과 제직임명 위해 기도부탁**

- 내년도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
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소임을 다하는 교회되도록
마음으로 준비하는 제직들이 됩시다.

♥모임

- 1) 여전도회 월례회 : 식사 후 본당
- 2) 서대전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월례회
- 11/16(월)오전 11시, 여전도회관

♥교우소식

-출산 : 강인숙 사모(장주원 전도사) 득남

♥교회력

11/29 연말당회

12/6 예산제직회 / 을지대학병원 환우 예배 인도